



順天金氏中央宗親會

제 67 호

# 順天金氏宗報

宗訓

1. 崇祖 精神의 高揚
2. 宗族 和睦의 勵行
3. 國家社會에 貢獻

2011. 5. 9 (월)

順天金氏中央宗親會 발행/ 발행인:김행업/편집인:김상돈/ http://www.schkim.co.kr /138-839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101-11호 신화SILK빌딩 2층/전화(02)400-2501/FAX(02)400-2505

## 春享大祭奉行



順天金氏 中央宗親會는 2011년 4월 8일 (음 3월 6일) 순천시 주암리 同源齋에서 中央 宗親會 行業회장을 비롯한 회장 단과 전국 지역종친들이 참여한 가운데 영당제(影堂祭)가 경건하게 봉행되었다.

시조부군 춘향대제는 희생(犧牲)을 재물로 쓰기에 생물을 올려 진설하여 봉행하고 춘향대제의 진설과 봉행의례는 조선왕조실록 태조1년(1392) 기록에 제사의 전물(奠物)·제기(祭器)·작헌(酌獻)의 예(禮)는 한결같이 조정의 예제

에 의거하도록 하라는 실록에 따라 봉행하고 있다.

### 辛卯年 春享大祭 分定表

初獻官 : 학원(서울), 亞獻官 : 정희(해남), 終獻官 : 상원(순천), 執禮 : 한희(서울), 祝官 : 병모(부산), 謁者 : 상실(해남), 贊引 : 향환(해남), 奉香 : 계환(해남), 陳設 : 승연(서울), 諸生 : 행업(서울), 춘희(해남)

이날의 참배는 춘희 상임부회장의 집례로 봉행되었으며 춘향제 봉행일을 주말에 봉행하면 더 많은 일가들이 참여할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이 있어서 차후 중앙종친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 香料代

회장	김행업	1,000,000원
지평공과 회장	김학원	100,000원
상임부회장	김춘희	50,000원
종무부장	김한희	50,000원
부회장(서울)	김승연	50,000원
부회장(해남)	김정희	100,000원
부산종친회	김병모	40,000원



### 『順天金氏甲申譜 追錄 發刊公告』

本 中央宗親會에서는 2004년 발행한 갑신대동보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입록을 못 하였거나 추가로 입록을 희망하시는 종친분들을 위해 추록을 발간하기로 하였으며 5월 20일 宇 중앙종친회운영위원회에서 순천김씨갑신보추록편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가. 회의 일시 : 2011년 5월 20일(금) 17:00시

나. 결정 사항

-「순천김씨갑신보추록편찬위원회」편찬위원장은 중앙종친 회장을 당연직위원장으로 하고 각 과종회장의 추천을 받아 편찬위원을 위촉한다.

本 中央宗親會에서는 전담기구로서 「順天金氏甲申譜追錄 編纂委員會」를 구성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수단을 접수할 계획으로 있사오니 각과 지역종친회장께서는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敬望합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委員會가 구성되는 대로 宗報 기타 書信으로 公知할 것 입니다.

(중앙종친회운영위원회)

### 原稿 募集 要望

順天 金氏 宗報에 게재할 원고를 募集하오니 宗親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祖上님에 대한 行蹟과 考證資料에 관한 건
2. 宗派 및 宗會의 現況·活動에 관한 內容
3. 宗員의 教養을 위한 內容
4. 모든 宗員들의 專門分野別 參考할 만한 글
5. 孝行, 善行 등 우리 문종을 빛내고 사회에 모범이 되고 있는 宗親
6. 전국 각처에 산재해 있는 집성촌 소개
7. 그밖의 詩·紀行文·隨筆

위와 같은 내용의 原稿를 보내주시면 宗報에 게재하여 널리 알리겠습니다.

宗務部長 白

## 主簿公祖 春享祭 奉行



지난 2011년 4월 3일 전북 익산시 용동면 용성리 先山松鯨山에서 主簿公門中 宗員 60명이 참석 春享祭를 엄숙히 奉行했다.

먼저 長元 종친을 헌관으로 山神祭를 올리고 이어 追慕祭壇에서 主簿公(諱 承璧), 아드님이신 澎祖, 孫子이신 翰禎祖, 曾孫이신 棕世祖의 祭祀를 執禮에 淳元, 祝官 在煥, 初獻官에 亨煜, 亞獻官에 斗元, 終獻官에 萬享 종친으로 分擔하여 享祭를 올리고 다음에 松鯨追慕堂(應南祖以下 祖先納骨墓) 享祭는 初獻官에 信元, 亞獻官에 時元, 終獻官에 有亨으로 경건하게 奉行하였다. 이어 2011년도 總會도 마쳤다.

## 문경종친회 정기총회 거행



순천김씨 문경시 종친회가 2011년 4월 23일 경북문경시 흥덕동 소재 황제가든에서 200여명의 종친과 영남지역 종친회장 임원진 및 인근 상주지역 종친들이 참석하여 1부행사는



전년도 결산보고를 하고 이어 2부행사에서 종친들의 장기자랑이 이어져 흥겨운 행사로 이어졌다 무엇보다 종친간의 친목도모에 힘써야겠다고 다짐했다.

## 순천 김씨 마크 변경 안내

기 존 마 크



변 경 마 크



유서깊은 순천에서 우리김문 열리었고  
선조님들 공덕쌓아 명문으로 꽃피웠네  
후손들은 조상님의 높은유지 받들어서  
어디서나 사명다해 우리가문 빛내리라

도안 김 명 재

금색(金) - 고귀함을 뜻함  
분홍(順) - 굳은 절제와 정열의 가문을 뜻함  
노랑(원) - 지구를 뜻함 세계화로 뻗어가는 명문 가문을 상징함  
초록(바탕) - 순천은 넓은 평야와 곡창지대로서 풍요로움을 뜻함

# 왜 사는가의 뜻을 찾아보자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어가면 반복되는 생활에서 내가 왜 사는가?의 물음에 직면하게 된다. 그 해답은 성서 중에서 몇 분의 여성과 그 밖의 분들의 삶에서 찾아보기로 하겠다.

성서에서는 단연코 성모마리아를 꼽을 수 있다. 가난하고 척박한 땅인 유대나라에서 독생자 예수를 탄생시킨 후 사생아라는 등 온갖 모략과 위협 속에서 곳곳한 믿음으로 예수를 성장케 하여 온 인류에게 기쁜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신 분이다. 그럼으로 천주교에서는 특

별히 존경의 대상으로 성당과 가정에 마리아상을 모시고 참배하고 추앙한다. 이 마리아 숭배사상은 구라파를 중심으로는 문화의 근저(根底)를 이루어 여성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생활이 습성화된 모습을 볼 수 있다.

다음은 막달라 마리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마테복음 28장 1절 이하에 보면, 33세의 청년 예수가 로마의 통치하에 시달리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고 자각과 참회, 정의와 자유를 외침으로 많은 민중이 그를 따르는 것을 두려워한 유대인 중에 친로마세력과 국수주의자(바리새파)들까지 위협을 느껴 그들이 야합한 정치재판에 의해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된 후 로마병정들이 삼엄하게 지키는 무덤을 보러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의 돌을 굴러내고 그 돌 위에 앉아 있었는데 그 모습은 번개와 같이 빛나고 웃은 눈과 같이 희었다. 지키던 병사들은 무서워 떨다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고 했다.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무서워 말라 그대들이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가 말한 대로 그가 다시 살아나셨고 갈릴리로 가실 터이니 거기서 뵈게 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했다. 약한 여성의 몸으로서 엄청난 위협을 무릅쓰고 전무후무한 사건을 확인하고 많은 사람에게 전한 것이다. 요즘 우리나라도 신문, 방송사에 많은 여성들이 진출되어 활약하고 있다.

마리아와 같이 담대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언론계의 용어를 빌리면 민완(敏腕)한 기자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일꾼들이 많았으면 한다.

다음은 성서외의 인물로서 단연 마더 데레사 수녀를 꼽을 수 있다. 많이 알려진 분이지만 그는 그 당시는 가난하고 보잘 것 없는 땅 인도로 부름 받아 갔다. 데레사 수녀는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수도 없이 보살피 주신 종교를 초월한 인

류애의 실천자이다. 그래서 전세계인의 찬사를 한 몸에 받았다. 그러나 그는 평생을 고독과 어둠 속에서 천국과 신의 존재를 향해 몸부림치며 영적인 삶을 밝혀왔다. 그러면서도 고독이 지나쳐서일까. 신(神)은 내 곁에 계시지 않는 듯 싶다고 해 잔불결처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다음은 한국 내 인사로서 광주 YMCA 총무였던 조아라 총무를 꼽고 싶다. 그는 호남의 중심도시 광주에서 여성운동이 거의 전무할 때 광주 YMCA 총무로서 부르도자처럼 눈부신 활동으로 큰 업적을 남기셨다. 다소 편견도 없지 아니했으나 지면상 그가 헌신한 일 중에 한 두 가지만 소개한다면, 성빈여사를 설립하여 빈곤한 여학생들을 수용하여 학업을 계속토록 도운 것이다.

그 중에서 괄목(刮目)할만한 인물로 성장한 이는 김경천 여사이다. 광주 YMCA 총무(현재는 사무총장)를 승계토록 했고 국회에도 진출시켜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특히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셨다. 현재는 대학교수로 재직 중이시다.

그리고 해방 후 전국 이래 호남의 넓은 평야가 토지개혁은 이루어졌지만 인구는 늘고 전답의 영세화로 가난에 시달리다 어쩔 수 없이 윤락(淪落)의 길에 빠져든 여인들을 모아 기술교육과 직업보도를 하고 아울러 희망과 신앙을 가지도록 선도한 일은 값지고 귀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끝으로 사람이란 누구나 곤경에 처하면 외롭고 자포자기할 때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보람 있는 생활을 찾을 때 어려움을 극복할 용기가 생긴다는 것이다. 오래된 분이지만 소련의 작가 도스토예프스키(Dostoevski, 1821~1881)는 육군 중위로 재대한 후 사회주의 운동에 가담, 1849에 투옥되어 시베리아로 유형(流刑)되어 고독과 절망의 옥중생활을 보냈다. 고통스러운 수형생활이었지만 강제노동 중에서도 목적이 있는 노동을 하면 삶에 의미를 찾게 되고 고통을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즉 땅에 씨앗을 뿌리면 자라서 식량이 생산되고 집을 짓는 일은 사람이 그 안에 살 수 있게 되는 의미 있는 강제노역이지만 참고 견딜 수 있어서 형기를 무사히 마치고 출옥할 수 있었다고 그의 죽음의 집 저서에 남긴 내용이다. 그는 그 외에 죄와 벌, 백치(白痴),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악령 등의 작품을 남겼다.

황금만능주의에 사로 잡혀 살아가고 있는 요즘 많은 분들이 왜 사는가의 뜻을 찾아 생활에 변화가 있었으면 한다.

고문 김봉배



## 후원금좌내 계안

새로운 집행부에서는 9개 부서를 두어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또한 전국 파종회 및 지파회 위주로 전국 순김 여러분이 참여하는 중앙종친회를 운영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당면 과제 중 동원재 시조부군께서 현재 전라남도 지방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있으나 가락당 및 관리사택을 이전 정비하여야만 문화재 관리 기금지원을 받을수 있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 순천김씨 종원여러분!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 소중한 우리의 문화재를 지키고 명실 상부한 중앙종친회가 자립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합심 단결 할 때입니다. 종원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 부탁드립니다.  
중앙종친회 총무부장 김범재 拜上

농협중앙회, 355-0008-1852-43  
예금주 : 순천김씨종친회

# 동원재(同源齋)에서 드리는 글

## 1. 시조묘(始祖廟)

### 가. 시조 성황신김충영정(城隍神金攄影幀)



시조공 평양군 휘 총(攄)께서는 신라국 대보공 휘 알지(大輔公 諱 闕 智)의 후손이시며 후백제 인가별감(引駕別監)으로 어진 정사(政事)를 하여 백성들을 편안케 하시어 평양군에 봉해지셨으며, 공의 사후에 백성들이 그 지방의 수호신으로 추앙하였으며 후일 나라에서 춘추로 제향하게 하였다.

시조 영정은 고려초 나라에서 순천의 동쪽 진례산에 성황사(城隍祠)를 세우고 김충 장군과 박난봉 장군을 함께 모시다가 조선 인조25년(1727)에 이순신 장군을 추배하여 세 분의

위패를 사당에 모시다가, 조선조 고종6년(1868)에 대원군이 백신철향(百神撤享)하면서 휘철되어 순천김씨 후손들이 시조의 영정을 동년 9월 주암면 오성산 서쪽에 있는 동원재(同源齋)에 모시게 되었으며 1988년 성황신김충영정(城隍神金攄影幀)이 전라남도 민속자료 제27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 참고 : 성황신묘(城隍神廟)의 성황신은 고려초에 국가에서 봉작을 내리고 춘추로 국가에서 제사지내는 국행제이며 동국여지승람의 기록에 사후 성황신이 된 인물은 순천도호부의 김충(권40), 대흥현의 소정방(권20), 양상군의 김인훈(권22), 의성현의 김홍술(권25), 밀양도호부의 손금훈(권26), 곡성현의 신승점(권39)이 있는데 소정방을 제외하고 모두 고려초기의 무장 출신으로 국가에 큰 공로가 있는 인물들이다.

조선왕조실록 태조1년(1392) 기록에 성황신의 제사는 전물(奠物)·제기(祭器)·작헌(酌獻)의 예(禮)는 한결같이 조정의 예제에 의거하도록 하라는 왕조실록 기록을 붙인다.

### 다. 춘향대제(春享大祭) 봉행시 유념할 사항

- 1) 영정실 동편 별묘사당에 신좌를 만들고 감실(龕室)을 만들어 신주를 봉안하고 감실 밖에는 휘장을 드리워야한다.
- 2) 영정과 신주를 한 방에 봉안하면 영정 전하(前下)에 신좌(神座)를 위치시키고 신좌위에 감실(龕室)을 올려 신주를 봉안하고 감실 밖에는 휘장을 드리워야한다.
- 3) 별묘사당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봉행하려고 하면 교의를 제사상과 영정 사이에 위치시키고 종손이 별묘사당에서 신주를 교의에 내어 모시고 제사를 봉행해야 한다.

▶ 참고 : 별실에 신주를 봉안하고 휘장을 드리운 종묘사진과 영정아래 신주를 봉안한 탐진최씨시조묘 사진을 참고로 붙인다.



조선 종묘대제 <신주와 제사상 사이 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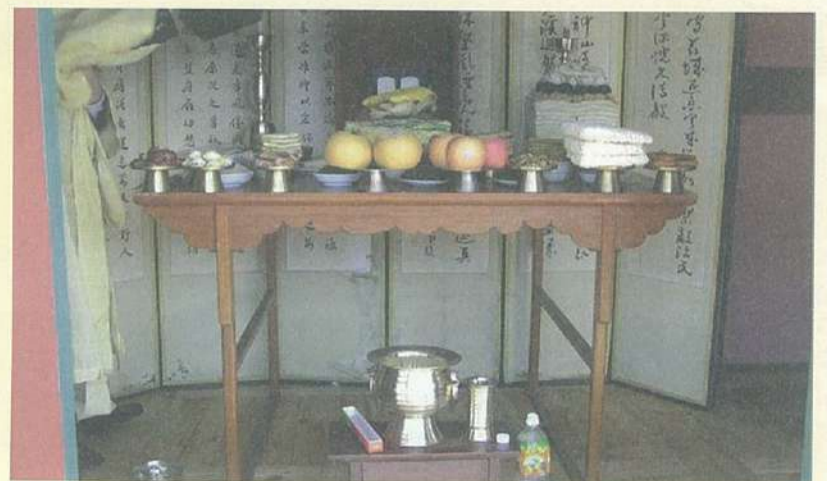
탐진최씨 시조영당 <영정 아래 신주 봉안>

## 2. 별묘(別廟)

### 가. 양경공 불천위묘(襄景公 不遷位廟)

양경공 부조전묘제(不祧典廟祭)는 매년 춘(春) 음 1월 15일, 추(秋) 9월 9일에 문경군 가은면 작천리에서 불천위묘제(不遷位廟祭)가 봉행된다.

양경공 휘 승주(承雫, 1354~1424)공은 조선조 태종(太宗) 때 좌명공신(佐命功臣)으로 삼사의 판서를 거쳐 좌의정(左議政)을 지내시었으며 세종6년(1424) 2월 8일 평양부원군(平陽府院君) 휘 승주(承雫)공의 서거하신 부음을 들으신 세종(世宗)대왕께서 3일간 철조(輓組)를 하시고 후한 부의(賻儀)와 치제관(致祭官)을 보내시어 예장(禮葬)케 하시었으며 세조3년(1457) 좌명 공신(佐命功臣)의 공로로 부조전(不祧典)을 받으시어 영원히 봉안하여 후일 이안과 중수를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양경공 불천위묘제[不遷位廟祭]

### 나. 시조묘(始祖廟) 평양군춘향대제(平陽君春享大祭)



시조 평양군춘향대제(平陽君春享大祭)

시조부군 춘향대제는 매년 음력 3월 6일에 순천시 주암면 주암리 同源齋에서 中央宗親會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전국 지역종친들이 참여한 가운데 영당제(影堂祭)가 봉행되며 춘향대제는 희생(犧牲)을 재물로 쓰기에 생물을 올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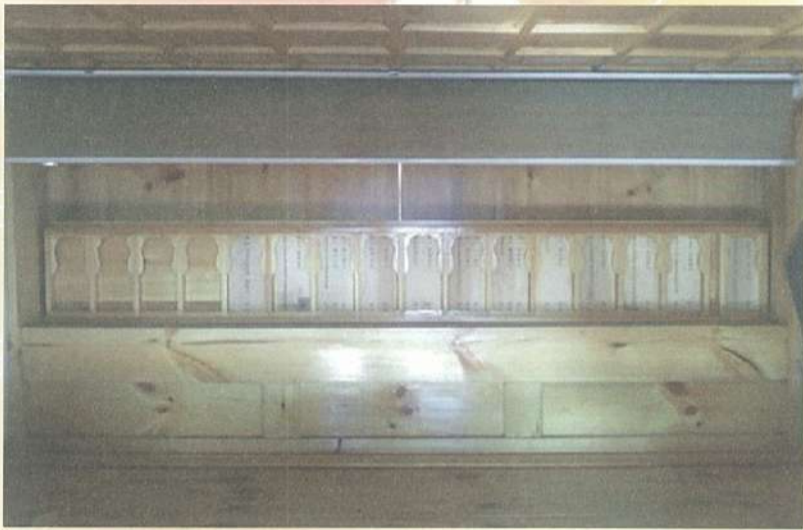
진설하여 봉행한다.

춘향대제의 진설과 봉행의례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주장을하고 있기에 전물(奠物)·제기(祭器)·작헌(酌獻)의 예(禮)는 조정의 예제에 의하여 봉행한 근거를 기록하여 바로하고자 한다.

<조선왕조실록> 태조 1년(1392) 8월 11일(경신) 예조 전서(禮曹典書) 조막(趙璞) 등이 상서(上書)하였다. "여러 신묘(神廟)와 여러 주군(州郡)의 성황(城隍)은 나라의 제소(祭所)이다, 각기 그 고을 수령(守令)에게 매양 봄·가을에 제사를 지내도록 하고, 전물(奠物)·제기(祭器)·작헌(酌獻)의 예(禮)는 한결같이 조정(朝廷)의 예제(禮制)에 의거하도록 하소서하였다.

나. 문중 불천위묘[門中 不遷位廟]

순천김씨 문중불천위는 안동시 풍천면 구담의 국담정사에 선조 참의공 김유온을 비롯한 11인과 외선조 권집경의 위패를 문중불천위로 봉안하여 모시고 있다.



구담 국담정사 문중불천위묘(門中不遷位廟)

▶ 참고 : 조선시대 불천위(不遷位)는 국불천위, 유림불천위, 문중불천위가 있으며 나라에서 죽은 이의 탁월한 공적을 인정하여 불천위를 명하는 국불천위와 그 지역의 유림들의 공론으로 학문과 인격이 뛰어나다고 인정되어 불천위로 천거한 유림불천위, 그 문중에서 불천위 뜻이 모아져 문중의 훌륭한 조상을 모시는 것이 문중 불천위이다.

다. 불천위묘(不遷位廟) 봉행시 유념할 사항

- 1) 제사의 진설과 봉행의례는 천하 성씨가 저마다 다르게 주장하고 있음은 별다른 도리가 없으나 문중안에서 서로 다르게 주장함은 매우 잘못된 것이며 만약 어떤이의 족조 제사 진설을 조율시이(棗栗榲梨)로 하는데 그 아들의 제사를 홍동백서(紅東白西)로 진설한다면 매우 아릅답지 못하며 불효함이 대단히 크다 하겠다.
- 2) 문중인 중에 더러 타 문중의 진설과 봉행의례를 본받아 그것이 옳다고 주장함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다. 제사의 진설과 봉행의례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 성씨 가문에서 정하여 대대로 내려오는 법식(法式)을 예를 다하여 봉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문의 법식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 참고 : 광산김씨 불천위 제사와 경주김씨 수은공 제사 진설 사진을 참고로 보인다.



광산김씨 김집 불천위 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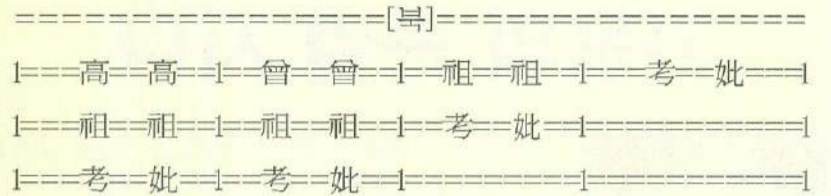


경주김씨 수은공(김충한) 제사

3. 가묘(家廟)

- 1) 사당 안에 4감(龕)을 설치하여 4대조를 봉안하는데 서

편부터 고조고비(高祖考妣), 증조고비(曾祖考妣), 조고비(祖考妣), 고비(考妣)의 순서로 위(位)가 된다.



- 2) 사당에 모시는 신위는 대체로 4대 종조고(宗祖考)를 以西爲上으로 하여 모신다.

위치는 정침(正寢) 동편에 3칸으로 세우는데 앞에 문을 내고 문 밖에는 섬돌 들을 만들어 동쪽을 조계(祚階), 서쪽을 서계(西階)라 하여 모두 3계단으로 하였다. 사당 안에는 4감(龕)을 설치하여 4대조를 봉안하는데, 반드시 북단에 남향으로 하고, 서편부터 제1감이 고조고비(高祖考妣), 제2감이 증조고비(曾祖考妣), 제3감이 조고비(祖考妣), 동편인 제4감이 고비(考妣)의 위(位)가 된다. 각각의 감(龕)에 감실과 탁자를 배설하여 각 감실에는 신주 두개가 들어가는 신독을 만들어 덮고, 그 덮개를 열면 내부에 考와 妣의 신주를 따로 만들어 배설한후 신독 전체를 황색 또는 백색의 보자기로 덮은 뒤 감실의 문을 닫는다. 감실(龕室) 밖에는 휘장을 드리우며 각 위패마다 제사상을 놓고 그 위에 촛대 한 쌍씩을 놓으며, 최존위(最尊位) 앞에는 향상(香床)을 놓되 그 위에 향로는 서쪽, 향합은 동쪽에 놓는다. 사당은 담을 쌓아 가리고 앞에 대문을 만든다.

4. 글을 마치며

유교 사회의 가족 개념은 죽은 조상까지 가족에 포함하고 있어서 집안의 대소사가 있으면 사당에 계신 조상님께 정갈한 음식을 마련하여 제상에 올리고 경건하게 절을 하며 축문을 지어 읽어드린 후 조상이 흠향한 음식을 후손들이 나눠먹으며 조상과 후손들은 서로 교감하며 가족으로 연결되어 있다.

후손들은 이러한 제례의식을 통하여 옛 조상들의 세계관과 사고방식을 새롭게 인식하여 찬란한 조상의 얼을 오늘에 이어받아 가문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도모해 나아가고 있다.

오늘날 작금의 현실은 전통과 멀어져가는 페미니즘 성(姓)혁명이 새롭게 등장하여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기 전까지 양성(兩姓)쓰기 운동을 주장해 오다가 급기야 성안쓰기를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상들은 급진세력들의 가족제도 변혁운동에 기인된 소산물이지만 근본 원인은 완고한 유교적 이념이나 조직이 젊은이들에게 폐쇄적이고 형식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하고 재행과 종사를 기본은 지키되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로 개선하여 새로운 시대의 젊은이들과 동행 할 수 있도록 중앙종친회 집행부에서 한층 더 깊은 고민과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2011年 4月 27日

順天金氏中央宗親會 宗務部長 석담 김 한희



●●● 종친회 이모저모 ●●●

### 가문의 큰별 지다



金東英 (海石) 전 고문께서 지난 2011년 1월 4일 향년 93세로 별세 하였습니다. 공께서는 그동안 동원제 도유사를 지내시면서 갑자보후, 동원재 및 영정각 감역을 도맡아 신축하였으며 우리 가문에 많은 업적과 공을 남기셨으며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 춘회 상임부회장 또한 가문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순김일가 모두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이달의 종원



金相允 (東坡) 종친은 어사공과 18대손으로 현재 어사공과 종회장이며 경기도 이천 전서공과 집성촌에 40여부를 비롯 전국 종친에게 지난 8년간 약 700여부의 세계도 작성하여 무료로 보내주는등, 우리의 뿌리를 계승 발전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 해남신문

2004년 7월 16일 (음력 5월 29일) 금요일

### 집안 세계(世界) 작성해 각 종친들에게 발송

신청오면 손자까지 정리된 세계 붓으로 일일이 작성

#### 김상운씨(향산면 남리)



순천김씨 남은공과 김상운씨 (70. 향산면 남리), 전국의 종친들에게 집안의 세계를 정리해 주는 재미로 노년을 보내고 있다. 순천김씨 시조에서부터 세계를 써 달라고 부탁한 사람의 손자까지 한 눈에 볼 수 있는 세계를 일일이 붓으로 써 우송해 주는 일에 푹 빠져 사는 김씨가 현재까지 전국의 종친들에게 보내준 세계는 300여장. 2003년부터 이 일을 시작했다는 김씨는 일단 일이 들어오면 즉박을 펼쳐놓고 자필로 작업을 한 후 등기 우편으로 세계를 써 보낸다. 나이가 들어 눈이 어

둑고 손도 떨리지만 자신이 직접 작성한 세계를 보며 조상을 소중히 여길 그들의 모습을 떠올리면 그저 이 일이 즐겁고 보람으로 여겨진다고 말한다. **양정홍씨의** 김상운씨는 순천김씨(남은공과 사람이지만 그가 작성해 보내는 세계는 순천김씨 전 종친회를 망라하고 있다. 모두가 한 조상의 후손들이기에 파조를 떠나 순천김씨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세계를 써 준다고. 많지 않은 돈이지만 자비를 들여 하는 일이라 더욱 보람이 있다 는 김씨는 문중에 대한 애착이 대

단한 사람이다. 명문집안의 자손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살면 후손들의 삶도 더욱 가치있고 남에게 본보기 되는 삶을 살 것이라는 믿을 때문에 그는 세계를 작성해 주는 일은 붓을 놓는 마지막 순간까지 할 것이라고 다짐한다. <박영자 기자>

순천김씨 향산파 문묘 - 김상운씨

### “뿌리를 찾아줍니다”

붓으로 작성한 문중 세계표 전국에 보내 2003년부터 지금까지 400부 작성 앞으로도-



한 장을 작성하는데 꼬박 3일이 걸린다. 일일이 붓으로 써야 한다고 붓으로 쓰면 붓이 휘는 일이 그 일에 완전 대비되지 않으면 해낼 수 없는 일이다. 순천김씨 세계표를 일일이 작성해 문중 사람에게 보내주고 있는 김상운(73. 향산면 남리)씨. 2003년부터 지금까지 400부를 작성해 전국 각지 문묘들에게 보냈다. 김상운씨는 중시조까지 작성한 세계표를 복사 한 후 중시조 이후부터는 각 집안의 족보를 일일이 확인해 받은 사람의 손자까지 작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한문과 한글을 겸한 세계표는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 있는데다 필체도 좋아 하나의 작품으로 집안에 걸어놓기에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 개인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세계표를 받아본 문중 사람들은 너무나도 고맙다는 말을 속삭여주고 하는 김상운씨는 건강이 허약한 한 이 일을 멈추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또 세계표를 받아본 문중 사람들 중 수고비를 보내 주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는 국수 사양만 다. 자신이 보내준 세계표를 통해 자신의 뿌리를 알게 되고 그것을 숙지해준다면 그것만큼 좋은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그의 이 같은 열정은 순천김씨 중앙 종친회에도 널리 알려져 그에게 경기도 평택시 김포동에 종친회를 건설했다. 김상운씨가 문중 일에 관심을 갖게 된 데는 아버지 김지현씨의 영향 때문이다. 마음 온장을 지내셨던 아버지는 평생 문중 일에 열심이었고 어렵게 때부터 그것을 보여준 김상운씨도 자연스럽게 문중 일에 힘을 쏟았다. 김상운씨의 문중 사랑은 집안에는 제쳐놓고 먼저 문중 일을 할 만큼 열정이 대단했다. 15년째 순천김씨 향산파 문묘를 맡고 있는 그는 각 집안마다 흩어져 있던 조상들의 묘를 한데 모아 한 곳에서 시제를 모시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10일간 여러 곳을 돌며 시제를 모셨는데 지난해부터는 한곳에서 시제를 모시게 해 종친들의 장여를 높였다. 또 문중 제기도 수리하고 전임으로도 포장을 등 그 는 문중을 활성화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해 향산파 문중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순천김씨 중앙종친회 편찬위원도 맡은 바 있는 그는 가전제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주로 가전제품 수리를 하고 있는 그는 나이가 들어 건강도 예전같지 않고 눈도 힘들지만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이 모두 즐겁

다고 말한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에게 기쁨과 긍지를 주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는 김상운씨. 이 일 또한 남들을 기쁘게 하고 자신을 만족시켜주는 것이기에 소중한다고 그는 말한다. 신청 011-7778-1740 박영자 기자 hshkshrd@nmail.net

<http://www.schkim.co.kr>



대표 세무사 **金 乘 南** 세무법인 **봉 정** 경기도 김포시 김포항교길 5(우: 415-030) 사무실: 031) 983-8101 F A X : 031) 983-8116



AMS Autosound21 Multimedia System 대표 김 상 돈 President Kim Sang Don 본점(이태원 크라운호텔 뒤) TEL : 793-8893 FAX : 797-6088 H.P : 010-9999-0297 웹사이트: www.autosound21.co.kr E-mail: asound21@naver.com



회비 입금 현황(인명부록)

2011년 1월부터 ~ 2011년 4월 30일까지

부회장

- 1. 김경렬 2011. 1. 10 경기도 고양시
2. 김지섭 2011. 1. 14 충청남도 보령시
3. 김경렬 2011. 2. 10 경기도 고양시
4. 김상윤 2011. 3. 2 전라남도 해남군
5. 김석재 2011. 3. 8 경기도 이천시
6. 김백원 2011. 2. 11 전라남도 목포시
7. 김경렬 2011. 3. 10 경기도 고양시
8. 김동수 2011. 3. 10 전라남도 순천시
9. 김승연 2011. 3. 16 경상북도 문경시
10. 김영목 2011. 3. 29 충청남도 금산군
11. 김경렬 2011. 4. 11 경기도 고양시

고문

- 1. 김창연 2011. 1. 14 서울특별시 강남구
2. 김영배 2011. 3. 2 서울특별시 마포구
3. 김인환 2011. 3. 3 충청남도 금산읍
4. 김동오 2011. 3. 22 경상북도 문경시
5. 김재록 2011. 3. 24 경상북도 안동시
6. 김봉배 2011. 4. 15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무부장

- 1. 김한희 2011. 3. 4 경기도 과천시

재무부장

- 1. 김영석 2011. 3. 2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학연구부장

- 1. 김동주 2011. 3. 11 경기도 광주시

이사

- 1. 김낙희 2011. 2. 16 부산광역시 남구
2. 김해용 2011. 2. 28 대전광역시 서구
3. 김광주 2011. 2. 25 전라북도 전주시
4. 김상우 2011. 3. 2 경기도 김포시
5. 김호재 2011. 3. 3 서울특별시 서초구
6. 김대석 2011. 3. 3 충청남도 보령시
7. 김성일 2011. 3. 4 경기도 군포시
8. 김기석(이병) 2011. 3. 7 경기도 고양시
9. 김문철 2011. 3. 7 경기도 수원시
10. 김동원 2011. 3. 7 서울특별시 구로구
11. 김석원 2011. 3. 7 전라남도 담양군
12. 김승부 2011. 3. 11 전라남도 해남군
13. 김정기 2011. 3. 11 전라남도 목포시
14. 김승익 2011. 3. 11 전라남도 해남군
15. 김순원 2011. 3. 21 경기도 안양시
16. 김홍재 2011. 3. 21 경기도 이천시
17. 김동준 2011. 3. 21 충청북도 천안시
18. 김일재 2011. 3. 28 경기도 이천시
19. 김동은 2011. 3. 28 충청북도 청주시
20. 김해용 2011. 3. 28 대전광역시 서구
21. 김상범 2011. 3. 30 인천광역시 부평구
22. 김현희 2011. 3. 30 전라남도 해남읍
23. 김창현 2011. 4.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4. 김상응 2011. 4. 19 경기도 고양시
25. 김홍연 2011. 4. 19 서울특별시 은평구
26. 김동선 2011. 4. 19 경기도 고양시
27. 김길주 2011. 4. 26 전라북도 익산시

회원

- 1. 김종식 2011. 1. 26 경기도 남양주시
2. 김인환 2011. 1. 31 대구광역시 남구
3. 김연석 2011. 2. 7 경상북도 문경시
4. 김영환 2011. 2. 7 전라북도 정읍시
5. 김광연 2011. 2. 11 충청북도 영동군
6. 김상휴 2011. 2. 14 경기도 안양시
7. 김용환 2011. 2. 14 강원도 원주시
8. 김인선 2011. 2. 14 경기도 고양시
9. 김교열 2011. 2. 14 서울시 종로구
10. 김순영 2011. 2. 14 충청남도 금산군
11. 김연만 2011. 2. 14 충청남도 청원군
12. 김왕희 2011. 2. 11 전라북도 임실군
13. 김동경 2011. 2. 14 대구광역시 달서구
14. 김상일 2011. 2. 15 경기도 고양시
15. 김승희 2011. 2. 15 서울시 성북구
16. 김종탁 2011. 2. 15 서울시 마포구
17. 김성연 2011. 2. 14 울산광역시 남구
18. 김일호 2011. 2. 14 전라북도 임실군
19. 김귀원 2011. 2. 14 전라남도 담양군
20. 김창길 2011. 2. 14 전라북도 부안군

- 21. 김승환 2011. 2. 14 경상북도 상주시
22. 김병수 2011. 2. 15 전라남도 구례읍
23. 김동무(동선) 2011. 2. 15 충청남도 당진군
24. 김길원 2011. 2. 15 광주광역시 동구
25. 김중환 2011. 2. 15 경기도 안성시
26. 김상의 2011. 2. 16 경기도 고양시
27. 김명환 2011. 2. 16 서울특별시 강서구
28. 김동만 2011. 2. 16 서울특별시 강남구
29. 김지연 2011. 2. 15 경상북도 안동시
30. 김봉수 2011. 2. 14 전라남도 나주시
31. 김중해 2011. 2. 14 경상북도 안동시
32. 김태웅 2011. 2. 15 대구광역시 수성구
33. 김형철 2011. 2. 16 충청북도 괴산군
34. 김운용 2011. 2.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35. 김상욱 2011. 2. 17 경기도 고양시
36. 김척연 2011. 2. 17 경기도 고양시
37. 김동필 2011. 2. 17 서울특별시 서초구
38. 김중삼 2011. 2. 15 경상북도 안동시
39. 김일연 2011. 2. 17 울산광역시 북구
40. 김종목 2011. 2. 15 경상북도 안동시
41. 김형선 2011. 2. 17 경기도 동두천시
42. 김영일 2011. 2. 16 전라북도 정읍시
43. 김용석 2011. 2. 15 경상북도 의성군
44. 김윤근 2011. 2. 17 충청남도 예산군
45. 김상식 2011. 2. 17 대구광역시 동구
46. 김상철 2011. 2. 18 경기도 고양시
47. 김병남 2011. 2. 18 경기도 김포시
48. 김기환 2011. 2. 17 경상북도 문경시
49. 김남수 2011. 2. 18 경기도 연천군
50. 김종태 2011. 2. 18 경기도 화성시
51. 김상천 2011. 2. 18 경기도 안성시
52. 김연호 2011. 2. 21 서울특별시 노원구
53. 김학주 2011. 2. 21 경기도 남양주시
54. 김한수 2011. 2. 21 경기도 수원시
55. 김중준 2011. 2. 21 경기도 하남시
56. 김재용 2011. 2. 21 경기도 성남시
57. 김동일 2011. 2. 21 경기도 시흥시
58. 김동운 2011. 2. 18 경상북도 문경시
59. 김재명 2011. 2. 21 제주도 서귀포시
60. 김백연 2011. 2. 21 광주광역시 서구
61. 김동안 2011. 2. 21 전라북도 전주시
62. 김동성 2011. 2. 22 경기도 성남시
63. 김성열 2011. 2. 22 서울특별시 마포구
64. 김득수 2011. 2. 21 대구광역시 북구
65. 김광도 2011. 2. 18 강원도 양구군
66. 김정학 2011. 2. 22 부산광역시 진구
67. 김창희 2011. 2. 22 경상북도 구미시
68. 김익희 2011. 2. 23 서울특별시 서초구
69. 김기혁 2011. 2. 23 경기도 수원시
70. 김동국 2011. 2. 23 경기도 고양시
71. 김규식 2011. 2. 23 충청남도 연기군
72. 김이승 2011. 2. 23 경기도 의왕시
73. 김명환 2011. 2. 22 충청남도 부여군
74. 김상용 2011. 2. 23 제주도 제주시
75. 김규삼 2011. 2. 24 서울특별시 강남구
76. 김동해 2011. 2. 24 경기도 용인시
77. 김분택 2011. 2. 23 경상남도 양산시
78. 김재연 2011. 2. 22 경상북도 안동시
79. 김병도 2011. 2. 25 인천광역시 서구
80. 김정희 2011. 2. 25 서울특별시 강서구
81. 김호철 2011. 2. 25 서울특별시 도봉구
82. 김영철 2011. 2. 25 경기도 의왕시
83. 김구연 2011. 2. 25 서울특별시 강서구
84. 김원백 2011. 2. 25 경기도 광명시
85. 김귀순 2011. 2. 25 서울특별시 서초구
86. 김종식 2011. 2. 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87. 김동인 2011. 2. 25 경상북도 문경시
88. 김진석 2011. 2. 23 전라남도 해남군
89. 김상균 2011. 2. 25 경기도 남양주시
90. 김영태 2011. 2. 25 경상북도 구미시
91. 김준원 2011. 2. 25 광주광역시 동구
92. 김성재 2011. 2. 25 경기도 이천시
93. 김영순 2011. 2. 25 강원도 철원군
94. 김육남 2011. 2. 28 경기도 고양시
95. 김동구 2011. 2. 28 경기도 고양시
96. 김영수 2011. 2. 28 서울특별시 은평구
97. 김수호 2011. 2. 28 서울특별시 금천구
98. 김철희 2011. 2. 28 서울특별시 서초구
99. 김이균 2011. 2. 28 서울특별시 노원구
100. 김상희 2011. 2. 25 광주광역시 동구

- 101. 김동기(동식) 2011. 2. 28 부산광역시 북구
102. 김임용 2011. 2. 28 대구광역시 동구
103. 김인식 2011. 2. 28 경기도 용인시
104. 김종구 2011. 2. 28 전라북도 전주시
105. 김동국 2011. 3. 2 서울특별시 은평구
106. 김현남 2011. 2. 25 전라남도 고흥군
107. 김창환 2011. 2. 28 충청남도 보령시
108. 김병현 2011. 2. 28 전라남도 영암군
109. 김병진 2011. 3. 3 경기도 고양시
110. 김수진 2011. 3. 3 서울특별시 강남구
111. 김중훈 2011. 3. 2 강원도 강릉시
112. 김한권 2011. 3. 4 서울특별시 은평구
113. 김청수 2011. 3. 7 대구광역시 남구
114. 김필수 2011. 3. 7 인천광역시 강화읍
115. 김만환 2011. 3. 8 서울특별시 마포구
116. 김옥계 2011. 3. 8 경상남도 하동군
117. 김동근 2011. 3. 10 경기도 시흥시
118. 김강영 2011. 3. 9 경상북도 문경시
119. 김천연 2011. 3. 10 울산광역시 중구
120. 김정희 2011. 3. 14 경기도 수원시
121. 김중두 2011. 3. 14 전라남도 여수시
122. 김타관 2011. 3. 15 울산광역시 북구
123. 김상용 2011. 3. 15 전라남도 해남군
124. 김만형 2011. 3.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25. 김윤배 2011. 3. 16 전라남도 해남군
126. 김상만 2011. 3. 17 전라남도 해남군
127. 김재석 2011. 3. 17 광주광역시 서구
128. 김덕흠 2011. 3. 18 경기도 의정부시
129. 김중의 2011. 3. 22 경기도 부천시
130. 김재울 2011. 3. 25 전라남도 해남군
131. 김영조 2011. 3. 25 광주광역시 서구
132. 김동연 2011. 3. 25 전라북도 임실군
133. 김유동 2011. 3. 28 부산광역시 남구
134. 김동연 2011. 3. 25 전라북도 임실군
135. 김순수 2011. 3. 30 서울특별시 성북구
136. 김동호 2011. 3. 30 경기도 이천시
137. 김동일 2011. 3. 31 경기도 이천시
138. 김승걸 2011. 3. 31 경상북도 안동시
139. 김상준 2011. 4. 4 전라북도 전주시
140. 김갑연 2011. 4. 4 전라북도 진안군
141. 김기석 2011. 4. 5 서울특별시 동작구
142. 김창환 2011. 4.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43. 김형관 2011. 4. 15 광주광역시 북구
144. 김정희 2011. 4. 25 충청북도 청주시
145. 김우재 2011. 4. 25 경상북도 안동시
146. 김갑수 2011. 4. 25 경상북도 경산시
147. 김선균 2011. 4. 26 강원도 춘천시
148. 김주락 2011. 4. 26 울산광역시 중구
149. 김태연 2011. 4. 26 충청북도 충주시

무명인

- 1. 2011년 1월 25일 신한은행/미아동지점
2. 2011년 1월 27일 우리은행/여의도지점
3. 2011년 2월 15일 국민은행/구월북지점
4. 2011년 2월 15일 농협/경산지점
5. 2011년 2월 17일 금촌농협
6. 2011년 2월 17일 포곡/전대지점
7. 2011년 2월 21일 새마을/갈산삼지점
8. 2011년 2월 18일 계곡농협
9. 2011년 2월 23일 웅천농협
10. 2011년 2월 23일 농협진례지점
11. 2011년 2월 24일 농협/울산축산삼호
12. 2011년 2월 28일 진접농협
13. 2011년 2월 28일 진접풍양농협
14. 2011년 2월 28일 이천무악농협
15. 2011년 2월 28일 백제내유농협
16. 2011년 2월 28일 국민은행/덕전지점
17. 2011년 2월 28일 농협포곡전지점
18. 2011년 2월 28일 대구장기동지점
19. 2011년 3월 2일 우리은행/대치역지점
20. 2011년 3월 3일 수협울산/신정
21. 2011년 3월 4일 천안축산/신방농협
22. 2011년 3월 11일 원주봉화산/우체국
23. 2011년 3월 14일 신한은행/원당
24. 2011년 3월 23일 새마을금고/신도
25. 2011년 3월 29일 황신농협
26. 2011년 3월 30일 청천농협
27. 2011년 4월 1일 광적농협
28. 2011년 4월 18일 문경축협
29. 2011년 4월 21일 영남하체농협

# 비즈니스 신대륙을 찾아서 한화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이 땅 위에 더 이상 신대륙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위해 개척해야 할 신사업은 있습니다  
한화는 태양광사업을 비롯한 지속적인 신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대한민국의 글로벌 영토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